

전북대병원 진영호 교수 국제학회서 우수논문상 수상

MEMC 국제학회에서 철쭉 등에 함유된 그레이아노톡신 연구로 우수발표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응급의학과 진영호 교수가 진달래, 철쭉, 만병초 및 석청 등에 함유된 그레이아노톡신 연구로 국제학회에서 우수발표논문(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진영호 교수

진 교수는 미국응급의학아카데미(AAEM)와 지중해응급의학아카데미(MAEM)가 공동 주관한 제 10차 MEMC19 총회에 제출된 연제 초록 중 '그레이아노톡신 중독의 임상이벤트 : 단일센터 경험'이란 제목의 초록이 우수연제로 선정되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학회의 포스터 세션에서 우수발표 논문상을 받았다.

진 교수가 수상한 논문은 진달래과 식물인 진달래, 철쭉, 만병초 및 석청(아생풀) 등을 섭취한 후 응급실에 내원한 그레이아노톡신 중독환자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이번 연구는 증례 연구가 아닌 임상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진달래, 철쭉, 만병초 등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담근 술이나 끓인 물(탕재)을 섭취하거나 네팔이나 터키산 석청(아생풀) 등을 섭취할 경우에 그레이아노톡신으로 인한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그레이아노톡신에 중독이

되면 쇼크수준의 혈압저하와 느린 맥박 등으로 인한 구역, 구토, 어지럼증, 시야 흐림, 의식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호흡마비나 환각 등의 증세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진영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레이아노톡신에 중독된 경우에는 주로 진달래, 철쭉, 만병초 등으로 담근 술이나 네팔과 터키 등에서 구입한 석청을 먹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이 진행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섭취 후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사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실군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개최

임실군은 10일 임실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제67회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하여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한완수 전라북도 부지사, 김대영 임실군 재향군인회장 및 각 기관단체장 및 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임실군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 창설 67주년을 축하하고 향군의 결속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는 향군인의 다짐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안보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민 임실군수는 "우리 지역의 안보안정체로서 지금까지 이룩해 오신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의 위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도 재향군인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예우를 갖추고 보훈의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전북농협 농업인 행복콜센터, 취약농가 2곳 생필품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군산시지부(지부장 조인갑)·동군산농협(조합장 박영근)·농촌현장지원단과 함께 10일 군산시 나포면·서수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2곳에 라면, 쌀, 화장지, 세제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연세가 많아 몸이 불편하여 활동이 힘들어 생계가 힘든 어르신께서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하여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전북농협, 군산시지부, 동군산농협,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2곳을 방문하여 집안 청소봉사와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된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가 어렵게 사시는 농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임실군 임실농협 관내 돌봄대상자 어르신에게 생필품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농협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승계), 임실농협(조합장 최동선), 농촌현장지원단은 최근 임실군 임실읍, 청용면, 덕치면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 3곳에 라면, 계란, 고기, 김, 화장지, 치약, 샴푸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활이 힘든 농업인이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하여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여 전북농협, 임실농협,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 3곳을 방문하여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도움을 받은 정모(78) 어르신은 "행복콜센터를 통해 생필품을 지원 받아 가족 등 지인들과 함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에 마음을 전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최근 태풍으로 인한 도복피해로 마음이 아픈 농업인과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며 앞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경 기자

남원 운봉파출소, 농축산물절도 예방강화

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는 지난 8일 운봉읍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이장 등 48명을 상대로 가을 수확철을 맞아 오는 11월 말까지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운봉은 고령지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수확이 일찍 끝나는 농산물 집중보관장고 등 취약지역 방범진단을 통해 CCTV, 경보기 등 방범시설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곡물용 소장은 "경찰이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도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이 보일 때는 경찰관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122명에 고향사랑 장학금 지급

진안사랑장학재단이 2019년 고향사랑 장학금 2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재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122명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향사랑 장학금은 진안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진안군민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성적과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생활비성 장학금이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상반기에도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성적 우수 장학금 1억8700만원을 106명에게 지급한 바 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고향사랑 장학금은 진안의 우수인재 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장학금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안성면 덕유산장터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전북도 상인연합회가 주최, JTV 전주방송이 주관하고 전북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지난 10일 안성면 덕유산장터에서 개최됐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안성장날 열린 이날 행사는 안성시장 상인회 박준용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군민 노래자랑과 초대 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코미디언 황기순의 사회로 진행된 군민 노래자랑에서는 10명의 주민들이 본선 무대에 올라 노래실력을 뽐냈으며, 초대 가수 강진 씨와 박진도 씨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서부지방산림청, 흰 덩굴 제거 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산림정책 중 하나인 '숲은 내 삶, 숲이 국민에게 다가 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도로변 및 산림경관 훼손의 주범인 칙덩굴의 효율적인 제거 및 산물처리 다양화를 위해 8~9월에 걸쳐 추진한 '칙덩굴을 부타해' 공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서부청에서는 매년 1,000ha가 넘는 지역의 덩굴류를 제거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는 제거된 산물을 산업용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칙덩굴 제거 및 산물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산림사업현장, 산림보호 적용 및 산림문화와 관련해 총 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제2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 일시: 10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전주매일신문사, 접수마감: 10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